

# 방통위, 베트남 대표단과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대응 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논의

- 이상인 부위원장, 베트남 공산당 중앙선전교육위 부위원장 면담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김홍일, 이하 방통위) 이상인 부위원장은 5월 29일(수) 방통위를 방문한 베트남 공산당 중앙선전교육위원회\* 레 하이 빙(Le Hai Binh) 부위원장 등 베트남 대표단과 만나 양국 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\* 베트남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의 참모기관으로, 국가 정책, 문화 등을 알리는 선전 및 정보 전파 활동을 조직하고 감독

네트워크와 인공지능(AI)의 발전으로 각종 정보의 생산과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온라인 공간의 불법유해정보 확산에 대한 부작용이 커져가는 상황에서, 양국은 허위조작정보 등 불법유해정보의 처리 절차와 관련 법규 등을 중심으로 규제 방향과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정책과 경험을 교환하였다.

방통위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2016년·2022년 방송통신 협력 MOU를 두 차례 체결하는 등 베트남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바 있다. 면담에서 이상인 부위원장은 “방송통신 이용환경의 개선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, 오늘의 방문으로 양국 간 정책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기획조정관<br>국제협력담당관 | 책임자 | 과 장 | 김영주 | (02-2110-1331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순원 | (02-2110-1333) |